

月間建築情報

住宅・大衆交通 投資 拡大를

IECOK 총회 世銀 韓國經濟報告

6월 20일 파리에서 열린 제10차 IECOK (對韓國國際經濟協議體) 총회에 IBRD (世界銀行)가 제출한 79年度 韓國經濟에 대한 報告書에서 지적한 내용중, “都市化”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住宅不足을 해소하기 위해 住宅金融制度를 강화하고, 低所得家口에 대한 賃貸住宅開發이 뒤따라야 하고, 地下鉄 擴張計劃은 올바른 方向이나 이 기간중 大衆交通手段이 개발되어야 한다. 環境保全을 위한 監視體制開發, 都市社會間接資本의 건설, 신규 工場設備에 環境保全을 위한 新技術 應用이 필요하다.

洞단위의 小規模 学区制를 건의

中學없는 341個面—掃도— 評價教授團

朴大統領은 22일, 政府政策評價教授團으로부터 올해 1.4분기 評價報告 및 建議를 받았다. 이중 文教社會政策部門에서는 初中學生들이 원칙적으로 徒步通學을 할 수 있도록 洞單位로 小規模學校制度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教育區庁의 數도 늘려 小規模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中學校의 義務教育실시에 앞서 中學校가 없는 전국 341면을 일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되었다.

集團住宅許可節次 간소화

聯立住宅 許可權은 區庁에 이양등 서울市 關係法令 改正 추진

26일, 서울市에 따르면 現行 集團住宅建設 許可節次는 7~11個 部署에 거치며 따라서 處理期間도 1~2月 썩 걸리는 것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행 집단주택 건설허가는 都市計劃1·2課, 綠地課, 消防指導課, 區劃整理課(구획정리기구), 都市가스課, 非常計劃官, 下水課, 商政課, 水道課 등 많으면 11개 부서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중 장기적인 도시계획상 필요한 都市計劃, 綠地, 消防, 住宅行政 등 4~6개 부서만 거치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해당부서의 방침만 통보받아 住宅行政課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本庁의 集團住宅許可權 중 聯立住宅許可權은 區庁에 위임할 수 있도록 關係法令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 한다.

市的 關係자는 建築許可節次 간소화는 不條理를 막기 위한 것이며, 建築許可條件등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地方都市 長期綜合開發計劃 수립指針시달

專門教授團 巡迴指導도

內務部는 26일, 釜山市(서울 제외)를 비롯한 38개市·170개 郡의 도시들을 종합적인 각도에서 규모있게 개발해 나가기 위한 長期綜合開發基本計劃을 오는 81년까지 새로 마련키로 하고, 이에 따른 基本計劃樹立指針을 釜

山市와 各道 및 市長 郡守에게 시달하였다.

이 指針에 따르면, 기존 都市計剛은 道路와 住宅建設 등 土地空間利用計剛만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長期綜合開發計剛에는 ○都市基盤整備計剛, ○生活環境保全計剛, ○産業振興計剛, ○社會開發計剛, ○財政計剛 및 都市行政改善計剛을 포함시키고 있다.

具滋春 내무부장관은 “지속적인 工業化政策에 따른 급격한 都市化 추세로, 79년 현재 都市化率이 66%에서 90년대에는 75% 이상, 2000년대에는 90%로 증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난 76년도 農地利用 및 保全 측면에서 수립된 現行都市計剛은 産業構造의 再配置와 國土利用構造의 再編成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都市地域이 확대되고 農村地域이 축소될 것에 대비 全國 中小都市開發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내무부는 이 計剛을 추진하기 위해 81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씩 4차로 나누어 구체적인 事業實踐計剛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地方都市 長期綜合開發計剛 樹立에 대한 巡廻指導를 위해 都市計剛專門教授 36명을 5개반으로 나누어 여름방학(7/18~8/26)에 36개 도시에 대한 巡廻指導를 建設部와 合同으로 실시한다.

都市計剛, 5年内 변경 못하게

서울市——變更統制基準 만들 方針

27일 서울市는 빈번한 都市計剛變更으로 인한 財産被害와 民怨을 줄이기 위해 “서울市 都市計剛變更 統制基準”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것은 지난 5월 17일 건설부 훈령 제402호의 “都市計剛變更 統制規程”에 따른 것이다.

이 統制基準의 주요내용은, 이미 결정된 都市計剛上的의 用途地域·地區는 天災등 10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결정된 都市計剛施設·土地區劃整備事業·一團의 住宅地造成事業 및 再開發事業에 대해서도 岩盤의 露出, 地盤의 붕괴, 地下水 등으로 施工이 어려운 경우 등 明文化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京畿道, 豪華別莊등 303동

財産稅·取得稅 추징, 重課

京畿道는 28일, 道内 豪華別莊·豪華住宅 등을 조사하여, 밝혀진 303棟에 대하여 財産稅와 取得稅 등을 추징하는 한편 後期分 財産稅 등은 10배 이상 重課하기로 했다.

조사대상기준은,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고, 누가 봐도 別莊으로 인정되는것, 遊園地안에 있는 호화주택, 塋地와 庭園이 건평보다 훨씬 크고, 풀장 등 위락시설이 있는것 등이라 한다. 이들이 가장 많은 곳은 自然景觀이 좋은 加平郡(147동), 龍仁郡(46동), 楊州郡(41동) 등의 순이다.

學校운동장·綠地廣場에 地下水車場 설치검토

綠地開發抑制·小公園증설등 연구중—서울市

鄭相千 서울市場은 28일, 우선 交通혼잡지역의 12公立學校 운동장과 綠地廣場등을 西獨의 “본”大學등 外國의 경우처럼 連차적으로 地下駐車場化하여 주차시설 부족현상을 덜고 市收入을 늘리는 한편, 漢江 高水軟地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市民들이 자유스럽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綠地地域 보존을 위해, 學校用地등으로 指定된 곳이라 하여도 그 지역에 나무가 우거져 있을 경우 開發을 대폭 抑制하고, 替費地와 街角整理 등으로 생긴 空地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小公園이나 綠地廣場을 만드는 한편, 公衆便所는 설치하되 이를 모두 地下에 시설할것을 연구중이라고 하였다.

証券去來所 2年10個月만에 竣工

1만 5천평, 102억원 투입

証券去來所(서울 여의도)가 76년 8월착공 2년 10개월만인 7월 2일 竣工 開館하였다.

규모는, 塋地 8,192평에 本館(지하 1층, 지상 4층), 別館(지하 2층, 지상14층, 탑옥 2층), 會議場館(지하 2층, 지상 2층)등 3개동에 연면적의 합계는 15,150평에 이르고 있다. 本館은 証券去來所 사무실과 立會場 및 証券電算會社, 別館은 証券對替決濟會社와 証券會社들이 사용한다.

이 去來所의 명물은, 최신시설의 立會場(市場)으로서, 明洞의 旧去來所 立會場의 4배규모인 641평인데 뉴욕·런던에 이어 世界第3位의 규모. 3面壁에는 電子時勢表示板이 설치돼 全上場種目的 時勢와 呼價狀況이 컴퓨터에 의해 온라인으로 표시되는것이 특징이다.

海外建設免許에 헛점

31개사가 한해도 受注 못해

海外建設業免許를 취득한 129개 業체중, 취득 21개월(77년10월 취득업체기준)이 넘는 6월말 현재, 무실적 업체가 31개 업체(24%)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허가만 해주면 海外工事を 수주할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免許를 발급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市, 共同住宅 登錄稅 감면

10家口이상 아파트·聯立住宅 대상—서울市

서울시는 3일, “市稅減免條例”중 등록세 감면에 필요한 실무요령을 마련, 10家口이상 아파트·聯立住宅등 共同住宅 建築主가 준공검사후 1개월 이내에 保存登記를 했을 때 登錄稅(8/1,000)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最初入住 分讓契約者 중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移轉登記를 필했을때 登錄稅(3/1,000)를 50% 減

免한다. 또한 79년 3월 1일 이후 竣工式과 20평 이하의 未登記住宅, 20평 이상으로 79년 1월 1일 이후 取得者들은 이번 減員조치에 소급 적용시켜 준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不動産景氣의 침체로 서민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준공, 이전 및 취득에 따른 부담이 커 이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韓國綜合展示場, 20개월만에 竣工

江南에 138億들어, 朴大統領 참석

韓國綜合展示場 이 着工 20개월만에 준공, 朴大統領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개관식을 가졌다.

貿易協會가 138億여원을 들여 서울江南區 三成洞29,000여평의 地 위에 건축된 국내최초의 이 常設綜合展示場은, 屋內展示場 4,860평, 屋外展示場 4,906평등 展示場 규모만도 9,700여평에 달하며, 6개국어 동시 통역장치를 갖춘 165명의 國際會議센터도 갖추고 있다.

이 展示場의 개관으로 앞으로 國內外的 모든 展示事業은 이곳으로 통합 및 一元化되며, 海外 各種博覽會 및 展示會參加支援事業을 비롯 國際協力 및 去來斡旋事業, 國際會議支援事業 등도 벌이게 된다.

合板가격 國際原木價와 連動制

工場液價 26~39% 올라

3일, 山林庁에 따르면 지난 4~5월중 國際原木價가 평균 53%나 동급함에 따라 合板業界의 源價在迫을 고려, 合板가격을 도입 原木價에 連動키로 하였다.

이 連動基準(가격조정율)은 현행 제품가격에 합한 것이다. 적용원칙은, 原木價格 引上分에 적용하고 製造陸費는 현행 가격으로 간주하며 4×8피트, 4mm合板을 기준으로 전규격을 체적에 비례해서 조정토록 했다. 또 國際原木價格이 10%이상 등락하는데 따라 連動制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山林庁은 7월 3일부터 4×8피트 3mm合板이 1,800원(중전 고시가 1,286원, 39%) 12mm合板이 5,391원(중전 3,907원, 38%), 加工合板이 2,504원(중전 1,965원, 26%)으로 각각 올랐다.

서울市內 無許·不良住宅 73% 陽性化

철거대신 再開發, 行政支援도

서울시는 5일, 시내 江川邊·高地帶등에 산재 해있는 無許可·不良建物에 대해 지금까지 철거 위주로 정비해 오던 방법을 바꾸어 현지어건이 허용하는 한 再開發事業을 통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鄭相千 서울시장은 “서울市內 不良住宅 整備對策”을 발표, 집단지역 정리대상 건물 133,305동 중 97,802동(73.4%)은 연차적으로 10년이내에 現地 再開發해서 아파트·聯立住宅등을 건설, 住民들을 수용키로 했으며 35,350동(26.6%)은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再開發은 住民들이 再開發推進委員會를 구성 추진하고, 서울시는 道路·上下水道등 公共施設費를 부담한다. 再開發을 촉진하기 위해 동당 200~300만원씩 용자지원 하고, 양도소득세 등 7종의 租稅를 감면하는 한편, 住宅型別 標準設計의 제공, 建築資材 需給支援 등 행정지원책도 적극 강구한다.

政府學賃單價 현실화를 건의 - 建設協

建帶保證制度개선, 官給資材에 雜費도

5일, 大韓建設協會에 따르면, 財務部가 지난 5/15~5/25까지 전국 630개 建設現場을 대상으로 실시한 建設學賃實勢은 현행 政府學賃單價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下半期 政府勞賃單價調整에 이를 반영, 현실화 줄것과 事故工事を 연대보증인이 保證施工할 때에는 보증인 명의로 계약을 갱신, 工事代金 領收 확보와 함께 元都給者의 契約保證金도 口庫에 귀속시키지 않고 保證人의 契約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建帶保證人制度를 개선해줄것을 건의하였다.

이밖에도 官給資材에 대비해 雜費를 계상해주지 않음은 잘못이라고 지적, 官給資材에 대한 雜費支給을 制度化할 것을 건의하였다.

土地收用·開發利益, 국가가 還收

元地主에겐 一部補填 - 法制化준비

政府·與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土地收用 開發事業·整備事業등에 의해 土地所有者가 현저한 利益을 얻을 때에는 國家가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開發利益還收法(가칭)”을 마련 오는 9월 定期國會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共和黨政策委는 9일, 建設部와 가진 간담회에서 특정 지역을 開發할때 특정인이 얻는 利益을 환수하여, 그로 인해 손해보는 元土地所有者에게 이를 일부 補填 해주도록 法制化할것을 촉구하였으며, 建設部도 준비중이라 밝혔다.

현재 國土利用管理法 3조 2항을 開發利益의 환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還收基準등은 따로 法律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은 開發負擔金 및 開發利益金을 財源으로 開發基金을 설치, 손해보는 元土地所有者에게 그 一部를 補償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한다.

上半期 建築許可, 작년대비 43%

6月中엔 더욱 低調 - 서울시

작년 下半期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건축경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서울시가 10일 집계한 금년도 上半期 建築許可件數는 작년 同期에 비해 42.8%에 불과하다.

특히 6月中 建築許可件數는 작년 同期에 비해 31.8%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6月中엔 아파트는 단 1건도

없고, 활발했던 聯立住宅는 작년 同期에 비해 72%에 불과한 178건 1,198家口이다.

1979년 上半期建築許可件數……서울시

구 분	79年 1~6月	78年 1~6月	증 감(%)
計	8,157 (17,200)	19,059 (40,806)	42.8 (42.2)
단독주택	5,642 —	13,848 —	40.7 —
연립주택	932 (6,168)	593 (3,268)	157.2(188.7)
아파트	42 (3,858)	298 (19,361)	14.5(19.9)
계	6,616 (15,668)	14,730 (36,477)	44.9 (43.0)
非住居用	1,541 —	4,329 —	35.6 —

(주) 괄호()안은 家口數.

이와같이 建築景氣가 부진한것은 △주택건설업체가 장기간의 不動産景氣沈滯로 이미 건설한 아파트의 分壤도 부진하여 신규사업을 관망하고 있고, △정부당국의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억제조치 등에 인한것으로 보고 있다.

油類값 59% 引上……10일부터

관련製品값 최고 48%引上……11일부터

電氣料金 35%引上……12일부터

정부는 10일 0시를 기해 국내 석유류값을 工場渡기준 평균 59% 인상하였다. 電氣料金도 평균 35% 인상하고 12일 전후부터 실시한다.

또 油類·電氣料金 인상에 따라 42개 關聯製品값을 4.1~48% 인상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鉄筋 4.9%, 形鋼 4.1%, 冷間薄鋼板 10.0%, 鋼管 14.9%, 亜鉛鍍鋼板 16.6%, 알루미늄塊 13.0%, 시멘트 18.4%, 板유리 21.6%, 石綿슬레이트 5.4%가 각각 인상되었다.

共同住宅 工事監理는 監理團 구성, 전담

현행 管理指針의 法制化도 ——서울시

서울시는 10일, 아파트나 聯立住宅 등 共同住宅 (50가구 이상) 건축의 불실공사 방지와 준공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管理指針의 法制化 및 監理團의 구성 운영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의 건축주와 감리자의 관계에서는 정상적 감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品質管理 및 入住後 管理指針이 있어도 法的 拘束力이 없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재 着工검사中間檢査, 竣工檢査를 하지만 肉眼檢査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品質管理班을 편성 운영시키고 있으나 監理者를 비롯하여 品質管理班要員이 건축주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公正한 監理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이보다는 大韓建築士協會라든가 대학교수 및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監理團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감리를 전담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건축주들은 建築費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監理團의 用役費로 예치토록 한다는것인데 서울시는 이러한 管理指針을 法制化할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그린벨트 一部 再調整 건의키로

不合理的 部分, 조사 직수 ——서울시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71년 7월에 설정된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에 모순점이 많아 再調整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250.3km²의 그린벨트구역과 주변 미개발 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開發이 가능한 구역임에도 묶여있는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임에도 제외된 구역에 대한 상호 조정을 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의 都市計剛區域 面積은 720.876km²로 이 가운데 34.7%인 250.30km²가 그린벨트이며, 그 그린벨트 중 73%가 林野이고 나머지는 開發이 가능한 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서 그린벨트의 해제와 추가를 하려는 것이지 그린벨트의 절대면적이 줄어드는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스페인 最惡의 호텔火災

투숙객 130명 死傷, 주방서 發火

「스페인」 서북부 「사라고사」의 한 고급호텔에서 12일 「스페인」사상 최악의 火災가 발생 130명의 死傷者를 냈다. 火災가 발생한 10층의 「코로나 데 아라곤」호텔은 客室 237개로 이날 300명이 투숙해 있었으며 2백여명이 대피했으나 80명이 죽고 47명이 부상했다.

火災는 이날 상오 8시부터 4시간 계속되어 호텔을 全燒시켰는데, 火災原因은 1층 커피숍의 주방에 있는 도너츠기계가 터지면서 튀긴 과열 식용유에서 發火한것으로 알려졌다.

建築規制 완화, 海外工事 目標額 늘려

下半期 經濟運用計劃 修正 ——申부총리

申鉉禧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최근 석유파동 등으로 세계경기는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며, 대내외적으로는 物量 공급의 제약이라는 어려움이 加重될것이라고 내다 보고, 下半期 經濟運用計劃을 修正하였는데, 이중 景氣대책은 다음과 같다.

최소의 成長鈍化를 감수하되 침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사정 등을 감안, 商業用 建築規制를 완화할 방침이며, 완공단계의 素材 및 中間財 産業의 지속방안을 강구한다.

僱傭·國際収支效果를 감안, 海外工事 受注目標를 60億달러에서 80億달러로 늘린다.

海外建設目標 늘리고

商業用建築規制도 완화할터 ——申부총리

申鉉禧 부총리는 14일 공화·유정 합동의원총회에서 原油값 상승에 따라 中東各國의 수입증대로 工事發注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海外建設目標 60억달러의 달성은 무난할것이라 전망하면서 그 목표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商業用建築規制의 완화에 언급, 철근 수급상 7月中의 전면규제완화는 곤란하지만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建築規制에 따라 商業用 建築이 격감, 지난 1~4月の 건축은 前年同期對比 45%나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賃賃料는 事務室 40%(지난 3月末), 店舖는 52%나 올랐다고 밝혔다.

海外建設受注目標 60억서 80억달러로

業体別 能力따라 按分 配定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政府方針에 따라 海外建設受注目標를 당초 60억달러에서 80억달러 확대 조정했다고 한다.

업계는 海外建設業体들이 현재 中東에서 시공중인 工事의 대부분이 8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계속적인 건설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受注活動이 요청되나, 이 지역이 自國業者保護意識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收益性이 좋은 플랜트受注는 技術面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당초 예정했던 60억달러 달성에도 적지않은 어려움을 지적해 왔다.

업계는 증액 목표를 업체별 능력에 따라 按分 配定, 차질없도록 할 계획이나, 다소 무리한 入札을 감행해야하기 때문에 支援策을 海外建設協會를 통해 건의할 방침이며, 정부는 이 건의를 가능한 한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太陽熱住宅 보급 多角的으로 支援

断熱材使用義務는 8月부터

정부는 16일, 太陽熱利用住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은 太陽熱住宅에 한해 40평 이상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太陽熱住宅에 대하여는 △取得稅 및 登録稅를 9月부터 82년말까지 면제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며, △25평이상의 단독주택에도 400만원 범위 내에서 國民住宅資金을 融資해주고, 聯立住宅에 대해서는 太陽熱利用施設 설치로 인한 追加負擔의 2/3까지 추가로 용자해주시기로 하였다.

또 太陽熱利用機器 生産業体에 대해서는 △15億원 범위 내에서 施設 및 運營資金을 용자하고 △集熱板 제조에 필요한 原資材 輸入關稅는 銅板 20%, 鋼管 30%, 強化유리 40%이나 이를 모두 면제한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太陽熱 목욕탕을 적극 보급하고 공공기관과 신규교육기관의 난방시설을 모두 太陽熱利用型으로 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太陽熱利用住宅은 일반주택보다 평당 10만원 정도의 建築費가 더 든다고 했다.

한편 断熱材使用 義務化는 動資部와 建設部와 합의, 建築法施行規則을 改正, 8月1日부터 施行할 계획이다.

太陽熱住宅 83년까지 14,400호 보급키로

日照量조건은 大邱地方이 으뜸

17일, 動資部가 太陽熱住宅支援策과 함께 마련한“太陽熱住宅普及 4個年計劃”에 따르면, 80년에 900호(단독주택 10700호, 연립주택 3,700호)를 건설한다. 年度別로는 80년 900호, 81년 2,000호, 82년 4,500호, 83년 7,000호이다. 動資部는 이로써 오는 84년이후부터 연간 40億원에 달하는 216,000드럼의 油類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動資部가 서울을 비롯한 9개 都市의 日照量調査에 따르면, 11月~2月까지 4個月間의 平均1日 日照量이 가장 많은 곳은 大邱로 밝혀졌다. 다음은 都市別 日照量(kcal/m²)이다. △서울 1,823, △水原 1,901, △光州 1,610, △大田 1,832, △江陵 1,448, △大邱 1,987, △仁川 1,330, △釜山 1,901, △濟州 1,535.

商業用建築 許可再開 검토——高建設

江北地域과 大型住宅은 계속 억제

18일 高在一 건설부장관은 상업용 건축규제조치가 資材需給의 불균형때문에 취해진 것이었으나 시멘트는 호전되고 철근은 불원 호전될 것이 전망되므로 許可再開를 검토하는 것이며,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江南地域에 한한다고 했다. 그 再開時期는 대충 年末께 가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소형주택건설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40평 이상의 单独住宅과 45평 이상의 아파트신축은 적어도 내년 上半期까지는 억제하며, 그러나 太陽熱住宅의 건축은 평수에 제한없이 허가하기로 動資部와 완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지역 그린벨트의 一部 解除說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그린벨트지역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 강조했다.

政府事業 20~30%工程移越, 油類파동 극복

勞賃單價 추가 인상 않기로

19일, 政府 당국에 의하면, 油類·電力등 에너지값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라 建築·土木등 1백여개 政府事業의 당초 工程進陞計劃을 20~30%정도 늦추어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할 방침이다.

또 아울러 民間部門의 建設景氣 부진으로 勞賃이 오르지않고 거의 작년 수준에 머물러있어 政府開發事業의 勞賃單價도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고 했다.

全國 豪華住宅·아파트 稅務調査

所得·賃賃실태파악, 所得稅 주징——국세청

19일 國稅庁 당국자는, 지난 5月 綜合所得稅 申告를 받은 결과 脱稅所得을 가려낼 필요가 있어, 금년도 家屋分 財產稅 課標 2,000만원이상인 단독주택과 50평 이상

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所得 및 賃貸 실태를 파악 所得稅를 추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경우, 1차로 조사 착수된 곳은 東水庫洞·漢南洞 단독주택과 現代·워커히 아파트이며 대상은 약 4,000家口에 달한다.

都心 再開發事業 중간상태

建築物높이제한, 緊縮등으로

서울시는 올해 瑞麟 제12지구등 18개 都心地區 29,000여명에 再開發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8일 현재 再開發事業 施行認可申請은 1건도 없는 실정. 서울시 관계자는 예년같은 計劃分의 절반가량이 진척되었어야 할 시기인데 지금까지 1건의 認可申請도 못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76년 12월 都市再開發法이 공포되면서 조건이 크게 강화되고, 지난 4월26일 人口集中 交通難 완화·都市美觀을 목적으로 江北 12~15층, 江南 20층까지 높이를 제한하자 地主들이 비싼땅에 낮은 건물 짓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物價高와 企業의 資金難 등으로 사무실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竣工前의 사무실 임대계약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현재 西小門洞에 건설중인 모빌딩의 경우 준공 3개월 전인데도 賃貸契約된것은 1건도 없다 한다.

街區別로 共同駐車場 설치

이전대상 工場부지 등을 활용

20일, 서울시는 駐車施設이 미비한 기존건축물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街區單位별로 共同駐車場을 이전대상 工場空地나 公共施設用地를 이용 설치키로 했다. 또한 公園·都心綠地·學校運動場·広場등의 地下駐車場도 적극 개발하고, 機械式駐車場등 駐車專用建物도 건립키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이미 街區別 駐車場을 확보하기 위해 旧半島아케이드 철거부지 1,625평에 조선호텔 부족주차장 250대분을 확보케 하고, 시청앞 광장에 연해있는 三益住宅·한홍빌딩·뉴코리아 건물부지에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駐車빌딩을 共同投資方式으로 건축토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法定駐車場施設이 부족한 기존건축물에 대해 駐車場法 19조 3항 및 同施行令 7조에 따라 建築主에게 부족한 駐車台數에 상당한 駐車場을 단독 또는 공

동으로 설치할것을 명령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建築主 부담으로 시가 대행하여 駐車場을 설치할 방침이라 한다.

建築費 予算單價 引上調整

油價引上에 따라——예산당국

최근 예산당국이 산출한 예산 단가는 油類引上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중 아파트는 평균 7.9%가 인상되었다.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既定單價	추가소요액	實所要單價
教室(철근콘크리트, m ²)	96,675	6,800	103,475
”(벽돌조, m ²)	66,979	4,710	71,689
医療施設(철근콘크리트, m ²)	146,320	11,490	157,810
學校사택(벽돌조, m ²)	100,726	7,090	107,816
高層아파트(39평, 평당)	585,387	46,002	631,389
中産層아파트(22평, 평당)	388,716	30,525	419,241
庶民層아파트(13평, 평당)	347,641	27,324	374,965

아파트 500家口이상 동시착공 불허

하자발생등 방지 위해——건설부

20일, 건설부에 의하면 住宅建設指定業체의 1회 着工規模는 500家口로 구분 단계별로 착공하도록 규정, 이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住宅事業登錄業체는 1회 착공 규모를 이보다 적은 300家口로 규제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규제방침은 ①아파트건설의 하자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②資材需給의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③건설기능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급조절을 꾀하기 위한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區副整理事業은 80년까지

首都圈 人口抑制方針에 따라——서울시

서울시는 20일, 그동안 추진해온 대규모 區副整理事業을 80년말까지 모두 마치고, 81년부터는 소규모를 제외한 새로운 대규모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 당국자는 현재 진행중인 14개 지구 2356만평의 구획정리사업을 80년말까지 마무리 짓고 그다음부터 首都圈 人口抑制方針등에 따라 새로운 대규모사업을 꾀지않을 방침이라 밝혔다.

47년전(1932년) 敦岩地區 704,000평에서 시작된 서울의 구획정리사업은 그동안 모두 35개 지구 3,565만평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왔다.